

<우리시대의 유령 Ghosts of Our Times>

거짓같은 사실



아이 웨이웨이, 레바41, 2008-2012

수업개요 : 우리시대의 유령은 나도 모르게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공포감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에서 새롭게 발견될 수도 있다. 이 수업에서는 세상에 거짓같은 범죄와 부패, 때로는 잘못된 인식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현재 우리시대의 유령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작가의 작품을 통해 바라본다.

대상연령 : 15~18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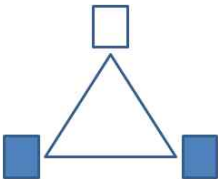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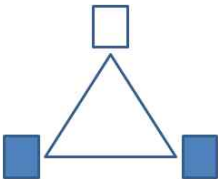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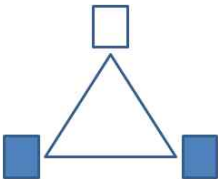
키 워 드 : 부패, 유령, 배움에 대한 압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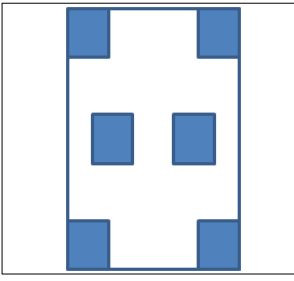
학습주제 : 작가의 작품 속에서 사회문제 발견하기

배 경 : 철근이 휘어져 있다. 2009년 쓰촨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특히 공공건물이 많이 붕괴되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그 사태를 숨겼고, 부실 건설은 예산의 많은 부분이 관료들의 개인 주

머니로 들어가는 중국 정부의 부패 현실을 숨기기 위함이었다. 작가는 이 사건을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알렸고, 당시 사망자 명단을 조사 작성하여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다. 또한 지진으로 인해 건물들의 잔해에서 나온 휘어진 철근을 모았다. 그리고 이것을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두 개의 복제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수업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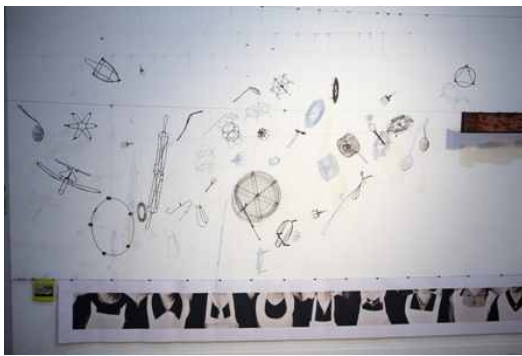
<p>도입</p>	<p>○ 작품 감상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 웨이웨이의 작품(실제 작품 or 사진)에서 먼저 전체를 감상하고 색과 형태, 재료의 질감을 느껴본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생각의 정원 <i>Garden of Thinking</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사용된 재료는 무엇일까요? - 작품을 만든 원작가가 복제를 한다면 그 작품은 복제품이라 할 수 있을까요? - 여러 장의 같은 사진 중 어느 것이 원본인가요? </div>	<p>Tip</p> <p>화가들은 종종 정부를 비난하고 사회적 문제를 폭로하기 위해 미술을 이용한다.</p> <p>ex)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p>						
<p>전개</p>	<p>○ 주제 이해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작품의 아이 웨이웨이의 작품제목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 거짓같은 사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을지 자유롭게 토론의 장을 만들며, 구툼 구툼스가드의 작품을 감상하며 아무런 정보가 없는 작품들이 모여 있는 전시공간에서 자신만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석 과정을 펼친다. <p>○ 선택 활동 1 : 수집하기와 전시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하고 싶은 자료를 잡지에서 찾거나 주변 사물을 사진으로 찍어 인쇄한다. 우드락으로 전시공간을 만들고 수집한 자료들을 나열하여 다른 친구들과 서로의 생각을 나눈다. <p>○ 선택 활동 2 : 토론공간 '아고라' 만들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  </td> <td style="width: 50%;"> <p>1대 1 마주보기</p>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d> <p>2대 1 2명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토론하고 한 명은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p>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소그룹을 구성하고 '아고라' 공간을 만들</p> </td> </tr> </table> </div>		<p>1대 1 마주보기</p>		<p>2대 1 2명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토론하고 한 명은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p>	<p>소그룹을 구성하고 '아고라' 공간을 만들</p>		<p>Tips</p> <p>먼저 작품의 제목을 제시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난 뒤에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p> <p>'아고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설전을 벌였던 장소이다. 아고라는 시장이라는 뜻인데 고대에서는 폭 넓게 정치, 종교 문화적인 시설이 모여 있는 곳을 의미하며 정치를 논하던 장소였다. 오늘날</p>
	<p>1대 1 마주보기</p>							
	<p>2대 1 2명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토론하고 한 명은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p>							
<p>소그룹을 구성하고 '아고라' 공간을 만들</p>								

	 <p>어 토론한다.</p>	<p>에는 공적인 의사소통이나 직접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말로 널리 사용된다.</p>
<p>정리</p>	<p>○ '더 큰 생각 잇기 <i>Big Garden of Thinking</i>' 게임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g Garden of Thinking' 게임을 하면서 주제를 폭넓게 생각해보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생각의 정원 <i>Garden of Thinking</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무엇을 보여 주고 있나요? - 우리 주변에서 거짓같은 사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div>	

이해의 정원 *Garden of Understanding*

이해의 정원 *Garden of Understanding* 은 교사들이 전시장과 학교에서 감상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참고자료 공간입니다. 아이들에게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정원', '지혜의 정원'으로 만들어 주세요.

▲ 연관 작품



작가명 : 구툼 구툼스가드

구툼 구툼스가드는 다양한 소재를 모으는 콜렉터로 이번 비엔날레에서 '전시장 안에 전시'로 총 3개의 공간을 구성하여 선보인다. 그 중 하나가 아무런 정보 없이 작품들을 나열해 놓아 사람들에게 기존에 정보를 보고 해석하는 교육적인 부분을 꼬집고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찾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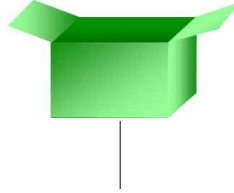


작품제목 : 분재 시리즈

작가명 : 쉐 샬오밍

다른 작가와 작품을 연결할 때, 해석적인 부분으로 연결할 수도 있지만 이미지만으로도 이야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쉐 샬오밍의 분재 시리즈의 이미지는 갇힌 공간에서 나사에 조여 자유롭게 성장할 수 없는 화초와 나무들을 보면서 창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육현실에 갇혀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연결할 수도 있다.

더 큰 생각 잇기 *Big Garden of Thinking*



초등학교 시절에 다른 아이들은 나에게 이야기를 지어 달라고 부탁하기 일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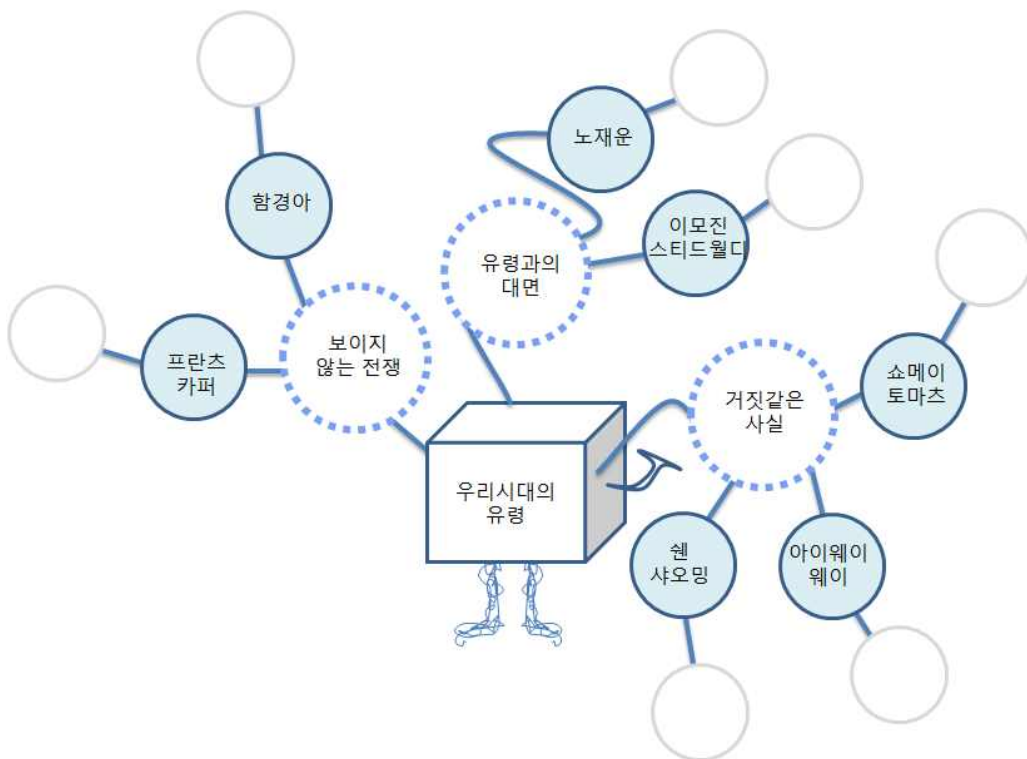
그러면 나는 대개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다가 너무 놀라서 입을 아물지 못했어.....>

그러다가 그것들은 하나의 게임이 되었다.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뜻밖의 해법을 찾아내게 하는 게임 말이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나무’ 중에서...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상상을 자극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사람들에게 뜻밖의 해법을 찾아내게 하는 게임으로써 단편 소설을 만들고 자신의 창의적인 이야기를 펼친다. **더 큰 생각 잇기 *Big Garden of Thinking***에서도 아이들은 한 작가의 작품을 넘어 서로 다른 작가의 작품을 연결하는 문제 제기를 통해 새로운 '발견'이 될 수도 있으며, 위에 그림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그릴 수 있다. 공식은 있으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